

제7회 강진군 임업인 한마음대회 성료

강진 아트를 대공연장에서 최근 강진군 임업후계자협의회(회장 황현철) 주관으로 제7회 강진군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개최됐다.

임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임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날 행사에는 강진원 군수, 김보미 군의회위원장, 김승남 국회의원 부인 김선미 여사, 전서현 도의원, 김주웅 도의원, 정중섭 군의원, 윤길식 산림조합장, 관내기관·사회단체장을 비롯한 임업인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과 개회식, 축하공연, 나눔행사로 진행됐으며 그동안 임업발전을 위해 노력한 우수임업인에게 표창장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윤동길, 이규철, 김효숙, 김은, 고성정 씨가 강진군수 표창을, 서호성, 최영환 씨가 국회의원 표창을 받았으며, 윤용기, 김영광 씨가 강진군 의장상, 한홍수, 정한규 씨가 산림조합중앙회장 표창을 각각 받

았다. 감사패는 강진군 산림조합 정환석 과장과 강진군청 해양산림과 송평강 주무관에게 수여됐다.

특히, 기념식에는 강진군임업후계자협의회에서 강진군민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 원과 강진군산림조합에서 난방유 7천400L(1천만 원 상당)을 희망 나눔 기탁하면서 지역 사회에 훈훈함을 더했다.

군은 앞으로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두릅, 음나무, 황칠, 헤이즐넛 등 소득작목을 적극 육성하고 산림자원을 관광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헤이즐넛 나무 재배 면적을 전국 최대 규모인 36ha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임업인 육성 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2억 9백만 원 증액하고 신규 사업으로 임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임가소득 증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박종욱 기자



강진 임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임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강진 아트를 대공연장에서 강진군 임업후계자협의회(회장 황현철) 주관으로 제7회 강진군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개최됐다. /강진군 제공

함평군, 동물방역위생
시책 평가 '대상' 수상

함평군이 전남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동물방역위생 시책 평가'와 '2023년 축산 시책 평가'에서 각각 대상과 장려상을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방역 및 축산정책 전반에 대한 각각 4개 분야 평가지표의 구체화·정량화·계량화를 통해 실시됐다.

군은 올해 고병원성 AI, 구제역, 렙티스킨 차단을 위한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시책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축산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국·도비 등 예산을 다수 확보했으며 사료 가격 폭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자 정부 특별사료 구매자금을 확보해 지원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수상은 행정만의 노력이 아닌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개발은 물론 철저한 가축 질병 차단방역을 위해서도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해 촘촘한 방역망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무안군, 동아시아 고구마 국제연수회

무안군농촌진흥청플러스사업추진단(단장 김명진)과 동아시아 고구마 친선협회(협회장 고하라 시게키, 한국회장 이정옥)는 공동으로 최근 이틀간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고구마 국제연수회를 개최했다.

오전 일정은 주요 내빈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정미남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고구마연구실장의 '기후변화에 따른 고구마 재배여건 변화와 대응방안', 요시도메 료이치 고구마월드센터 전무이사의 '일본지역 고구마에 의한 지역산업 구축', 왕리구오 천진평화유류농업발전유한공사 회장의 '중국의 명품 고구마 수의 창출 산업의 새로운 모델 구축'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오후 일정으로는 무안의 김명규 행복한고구마 팀장의 '고구마로 일군 유기농의 꿈', 추이부시 중국 한단시 종자산업유한회사 총경리의 '화하토 고구마 종묘산업 분야의 혁

신적인 발전', 베리도엘 동경국제대학 교수 겸 아마다에이지 가와고에 고구마 만화자료관 관장의 '일본 관동지방의 고구마 현황'으로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대공연장 로비에서는 실내 주제별·사례별 발표와 동시에 고구마 품종 전시와 무안을 비롯한 전국, 그리고 일본과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고구마 관련 가공제품의 전시와 시식 체험이 이뤄져 가공산업의 현주소를 알 기회의 장이 됐다.

연수회 다음 날은 친선협회 회원과 무안군 관내 고구마 생산 농가 중심으로 고구마 가공시설 현장 견학 또한 진행됐다. 먼저 청계농공단지 에 위치한 에프앤디를 시작으로 현장면에 소재한 무안군전략품목 융복합산업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행복한 고구마의 체험 판매 등 저장시설을 둘러 보았다. /고민재 기자

목포시, 첫 빈대 발견 개인 방역 철저 당부

목포시는 최근 관내 공중위생업소에서 빈대가 확인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빈대는 크기가 1~6mm의 납작한 모양으로 보통 침대 매트리스, 커튼, 벽지 틈새, 액자 뒷면, 의자나 쇼파 틈, 테이블 아래, 콘센트 등 조그만 틈만 있으면 어디든 숨어 살다가 새벽시간에 나와서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서 흡혈활동을 시작한다.

빈대는 질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물렸을 경우에 약 1~3일 이후부터 심한 가려움증을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해충이다.

목포시는 집에 빈대가 의심되면 전문 방역업체의 진단을 권고하고 있다. 보통 성충은 눈으로 확인이 되지만 알이나 약충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고 빈대가 성충이 되기까지 2달 정도 걸리는 점을 생각하

면 조기 발견을 통한 정확한 방역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환경부에서 전문방역용 긴급살충제를 승인했으나 이마저도 보조적 수단이며, 스팀청소기로 고열을 가하거나 직접 찾아서 퇴치하는 물리적 방제가 가장 최우선이다.

한편, 시는 이번에 수집된 빈대 약충과 탈피각에 대해 질병관리청 추가 분석 의뢰하고, 이를 통해 빈대 종류와 살충제 감수성을 실험할 계획이다. /박성태 기자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출범식 열어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이사장 우승희)이 최근 학생·학부모, 교직원, 마을교육공동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의 군민이 참가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이 목표인 영암군미래교육재단은, (재)영암군민장학회를 계승·발전시킨 민·관·학 협력 모델의 독립

법인이다.

미래교육재단은 지역 교육기관을 연결해 영암군 교육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 사업 발굴 등으로 학생의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자율형 미래교육선도지구 성과 나눔'을 주제로 영암교육 한마당도 열려 출범하는 교육재

단 앞길을 뜻깊게 했다.

우승희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이사장은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인재를 찾고, 이들이 지역사회 안팎에서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재단이 도울 것이다"고 밝혔다.

교육재단 전신인 (재)영암군민장학회는 지난 2008년에 설립된 이래, 영암군 학생 9천여 명에게 80억4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김기철 기자

신안, 바다 위 무료 와이파이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내년 1월부터 1004섬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에게 여객선을 이용하는 동안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도시의 대중교통 수단에는 와이파이 설치가 보편화돼 있지만, 섬 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인 여객선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부재로 주민과 관광객 모두 불편을 겪어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무료 와이파이가 서비스로 바다 위에서도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데이터 비용 부담도 줄어든 것으로 기대된다.

병풍도, 자은, 비금, 도초 등 신안군 관내 주요 관광지를 운항하는 9척의 여객선에 먼저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될 예정이며, 앞으로 서비스 범위는 더 확대될 계획이다. /장홍근 기자

